

일본 채란양계산업의 변천과정 (2)

편집부

2. 양계경기의 순환

계란가격의 변동은 양계생산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서도 가격형성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복잡한 요인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계란값 예측과 같이 곤란한 것은 없다.

일본의 경우 예를들어 가격형성과 예측의 기초개념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 농축산물(계란)의 가격형성과 예측의 기초개념

일반상품에 비교하여 농축산물(계란) 가격예측은 틀리는 수가 많은데, 이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리속에 경제학의 일반이론이나 원천적인 기초지식만 가지고 있을뿐 기후(기상), 경영활동, 소비성향, 생리현상 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1) 가격의 형성요인(일반경제학이론)

수요(D) 공급(S) 가격(P)

2) 농축산물의 가격형성 요인

①~⑥까지의 요소

가. 수요(DEMAND)

① 소비의 형성요건(FORMATION DEMAND)

○소비성향(가격부정 등을 적발하는 소비자)

○소득탄성치와 소득율의 상관성

○인구증가율과 국민 1 인당 소비량동향

○식품의 특성도(선도, 규격, 영양, 가격, 미용, 공해, 콜레스테롤)

○기술혁신과 신규제품의 개발

○유통의 동향

이상과 같은 동향분석이 필요하게 됨
나. 공급(S)

② 생산(P)

○병아리수수, 병아리 입식, 논밭갈이, 종자, 종제, 종축, 논밭갈이 경지면적, 축사 및 계사 건설면적 등의 동향

○육추율, 육성율, 생존율, 농작물의 작황, 병의 발생율, 품종개량도, 생산량 상품화율 등의 동향

○생산자재의 유통동향(초생추 및 중대추사료, 성제사료, 단미사료, 비료, 농약, 약품, 기재기구, 기계)

○생산지출하와 시장출하동향

○현지판매가격과 생산의 욕도

○금융사정과 행정 및 자금

(종합자금, 근대화자금 등), 대응동향

○도매물가, 소비자물가의 상승율과 중요생산자재(초생추, 사료)의 가격변동에 의한 생산코스트 상황

다. 기타

③ 수출·수입의 동향

○해외정세와 농축산물의 수요동향

④ 행정개입(공공투자)

- 공사 및 사업단의 대응책 동향
 - 방위 적국가 재원예산과 원조전해
 - 시장격리와 조정보관수량의 동향
 - 안정기금의 운용방책동향(적립금, 보조단가, 재원동향)과 가입상황
 - 생산조정가부
 - 정치적 심리현상의 기대도
(국회, 내각, 여당, 야당)
 - 농정활동의 전개상황
 - ⑤ 기후(기상)의 동향
 - 기온
 - 습도
 - 우량
 - 태풍, 천둥, 서리, 강설의 예측
 - 계절의 기상변동
- * 이러한 현상은 소비량 및 생산량을 제약한다.
- ⑥ 농축산물의 고유성
- 생리현상의 상황과 파악
 - 생선성(生鮮性)의 특성과 저장능력의 약세
 - 양계농가의 경영 심리상태
- 3) 농축산물의 수급변동과 가격변동에의 패급성
- 품질에 따라 차가 생기지만 상품의 선도, 재고량에 따라 제약받게 된다.
 - 1%의 수급갭(수요량에 대하여 1%의 공

급파이), 생선성이 높고 재고나 보존 가공할 수 없는 약점의 상품,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수급에 있어서 1%의 갭이 생길 경우 3~7배(평균 5배)로 가격이 변동한다

<계란의 경우>

1 kg 당 750원의 난가

$$750\text{원} \times 1\% = 7\text{ 원 } 50\text{ 전}$$

$$7.50\text{ 원} \times 5\text{ 배} = 37.50\text{ 원} \text{ 이 싸다.}$$

○ 재고 보관이 가능한 가공용상품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급에 있어서 1%의 gap이 생길 경우 1.5배~3배로 가격은 변동한다.

○ 요는 농축산물(계란)의 가격을 예측하는데는 1~6까지의 자본의 투입을 행한다. 수급의 gap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 양계경기의 변동

1) 생산자측에서 본 양계산업의 경기순환

가. 양계생산자의 경기형성 및 형질요소

양계생산자의 경기 즉 경영을 제약하는 요소로서는 계란과 생산비가 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지배하는 것이 계란의 수급관계와 생산자재(사료초생추 등)의 가격동향이다. 그렇지만 난가나 생산비의 60~70%를 점유하는 사료가격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에 제약되어 국내적으로 생산자는 거의 똑같은 조건하에 있다. 그리고 개개인을 지배하는 경제형질

표 2. 양계생산자의 경기동향

통년차	난가	경기	사료가격
74년	846원	폭 풍 우	고등기조
75년	912원	쾌 청	고가안정
76년	837원	비	고가안정
77년	912원	쾌 청	고가안정
78년	744원	폭 풍 우	고가에서 약간 하락
79년	744원	비→구름	고가에서 중간
80년	915원	쾌 청	중간에서 고가로
81년	1,026원	쾌 청	고가에서 중간
82년	※ 304(-10)	※맑→구름→비	※중간에서 안정→고가
83년	※ 250(±10)	※대불황폭풍우	※중간에서 고가

(주) 난가는 全農동경시장M사이즈 기준 1kg

83년은 예측에서 계별다발.

요소로서는 계란의 생산량, 육성 및 생존율, 사료효율의 삼요소가 중요하다고 본다.

나. 양계생산자의 경기순환 동향

생산업자경영을 지배하는 세 가지의 경제형질(계란의 생산량, 육성 및 생존율, 사료효율)을 버리고 양계경기 형성요소가 되는 난가와 생산비(사료비 주체)에서 본 양계생산자의 경기순환 동향은 다음 설명과 같다. (표 2)

다. 최근 및 앞으로에 있어서 경기순환분석

○77년 사료가격은 다소 높고 안정 추세였으나 난가도 강한 추이였다. 이러한 난가는 이상한파로 인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

○78~79년 사료가격은 높은 선에서 이동하고 있으나 79년에 들어서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난가는 전년도의 고란가에 힘입어 생산의 육은 증대하고 있으나 79년 하반기부터 폭락했다.

○79~80년까지 이 시기의 난가는 장기불황의 반동에 의한 생산량의 감퇴에 기인되어 강세를 나타냈다.

○80~81년 난가는 냉하(冷夏)와 이상한파 및 폭설 등 이상기온이 초래해온 자연적 현상의 난가 유지였다. 한편 사료가격은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81~82년 육성율은 저하되고 계병발생에 의하여 계란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판매가는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난가는 급속도로 폭락하였을 것이다. 즉 자연이변과 질병발생이 평년 같았으면 생산자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82년에는 높은 난가에 의하여 생산자의 경영체질은 강화되어 생산경쟁력이 강한 업자는 확대일로에 있다.

○83년 계란의 생산과잉으로 수급조절이 원활치 못하여 저란가 기조가 되어 생산자의 경영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다.

3. 계란의 유통구조 변화

● 구미 제국에 비하여 두 배 높은 농축산물 유통경비와 개선책

농업은 최근에 와서 과보호론이 대두되어 농

축산물에 대한 국민소비가격의 상승비판이 달마다 나오고 있어 어떠한 전기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한편 농가의 실질가처분 소득은 구조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니다.

이 양극의 거리를 거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유통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일본의 농축산물은 선진제국에 비하여 유통경비가 2배 이상이다. 그러면 서도 대단히 섭섭한 것은 이 업계에서는 기득권을 인정받으려고 이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3) 공정한 경쟁, 효율적 유통

앞으로의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뉴스(소리)의 다양화 등에서 지금까지의 적은 품종, 대량생산에서 많은 품종, 소량생산형으로 이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업종간의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되고 합병이나 업무제휴 등으로 업종간의 재편성이 진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음 내용이다. 식품의 유통권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방 소비지별 생산화의 경향에서 비교적 좁은 지역별로 생산, 유통, 소비 패턴을 전진시켜 종래의 광역유통권과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식품산업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생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쟁과 질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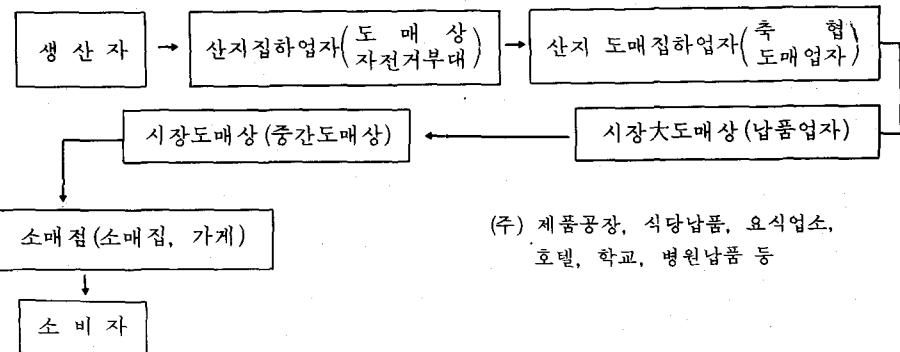
2) 양계농가의 계란 가처분가격은 결코 높지 않다.

전과 같은 대규모에 의한 대량생산의 이점이 가져온 계란 가처분가격(소득)의 향상, 즉 실질계란을 판매하여 손에 잡히는 금액은 늘지 않는 곤란한 현상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매년 생산 코스트이상으로 난가를 끌어올리거나 유통코스트를 하락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난가를 인상시키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소비자의 호응도 필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생산조정(계란의 공급량억제)이고 둘째는 소비의 확대와 수요의 증가가 있다. 그리고 유통의 개선이 있다. 이를 위해서 난가를 인상하는 방법중에 유통코스트 하락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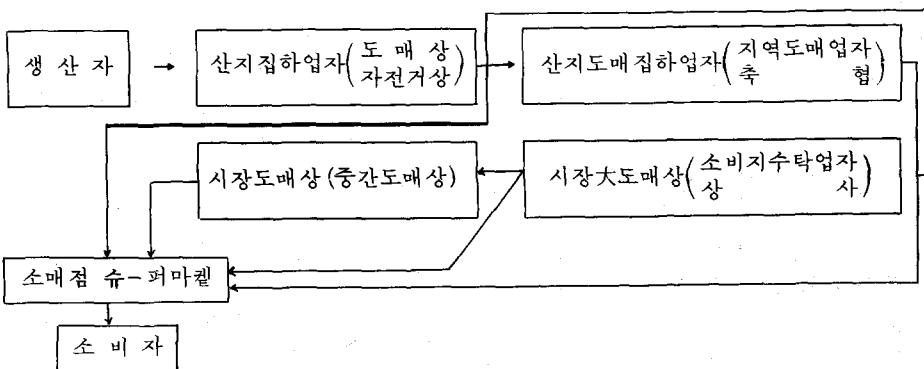
표 3. 계란의 주요 유통형태와 변이도

(A) 근래의 계란의 주요 유통형태 (195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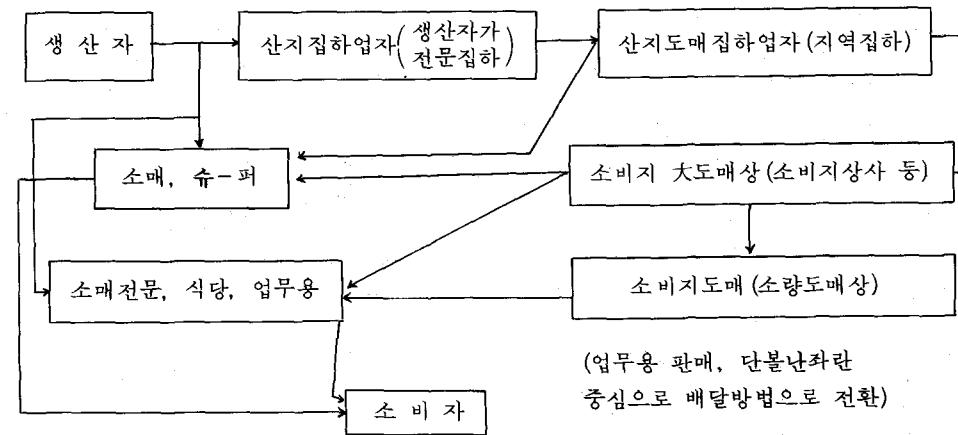


(B) 최근에서 현재까지 계란의 주요 유통형태 (1965년대 현재)

- ① 단불난좌란의 유통……일부 변경은 되고 있으나 (A)의 방법을 탈피 못하고 있음.
- ② 빠포장란의 유통 (셀룰로이드판난좌, 매년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C) 계란의 주요 유통형태, 1980년대 이후부터 변화도 기대



가. 매년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계란의 유통경비

원유가격의 앙등과 78년도에 제정된 과적수송의 규제강화 등에 의하여 계란의 유통경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계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은 매년 저하되고 있다. 운임, 노동력, 용기대, 수도광열비 등의 상승이 생산자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코스트 상승은 객관정세가 가져온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기존업계내에 있어서의 현상유지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로 악화되는 객관정세에 대처하는데는 업계내에서 다소라도 흡수할 수 있는 유통개선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양계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나. 계란의 유통경로에 대한 구조분석

계란의 유통경로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크게 나누어 표-3과 같다.

다. 계란의 유통경로 압축은 가능한가
도표-3에서 A 및 B와 같이 계란의 유통기능도 서서히 변형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아직도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산재해 있다. 우선 구미 선진국에 비교할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계란의 유통코스트는 매년 늘어만 가는 중에서 양계농가의 실질판매 수취가격을 인상하는 데는 유통기구를 정비하고 유통경로를 압축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는 양계농가는 물론이고 여기에 관계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영지를 짜내서 결단하고 현실을 타파하는 행동력이 불가결의 요건으로 될 것이다. 도표 3은 80년대(금후)에 있어서의 계란의 주요유통형태에 기대를 걸고 상상해 본 변이도표이다. 반면 이 업계에서 옛날의 좋은 시절을 버리고 양계농가를 위하여 금기에 도전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임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게 불안하기만하다. 그렇지만 유통혁명이 추진되어가는 유통과정에서 활성화가 아무리 지연된다하더라도 국민적 욕구인 유통개혁이라는 큰 흐름은 작은 돌을 가지고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누구도 이 힘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유통혁명은 가능하다고 믿어 마지 않는다. 하여간 구미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유통경비를 줄여서 다소나마 양계농가의 소득향상을 촉진하는 개선책으로서는 유통경로를 압축하는 방법이 최상의 길이 될 것이다.

계란의 유통경비 분석(생산자 직매의 경우)

① 산출기초

- 계란은 M(중란) 기준
- 시장에서 M계란의 가격은 안정세로 kg당 750원으로 계산
- 셀룰로이드 포장

②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

- 생산자 수취가격 = 630~705원
750원 - (45~120원)용기대, 출하운임, 수수료, GPC의 매입가격)
- 산지와 소비지의 거리 등 입지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산지 집하업자 마진 = 9~15원
- 소비지 대상 마진 = 6~15원
- 소비지의 문제점이 되는 마진 = 30~60원
(배달비 포함)

- 매수와 판매의 시장가격차 = 36~54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합계·매입가격) 750원 + 60~90원 = 810원~840원 → 소매점 납품가격

- 소매점 마진 = 51원~126원 (10~15%)
- 소비자 구입가격 = 891원~966원
(810원~840원 + 81원~126원)

③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경비

최대 : 336원 (966원 - 630원) 생산자 수취가격
대비 53% (336원 ÷ 6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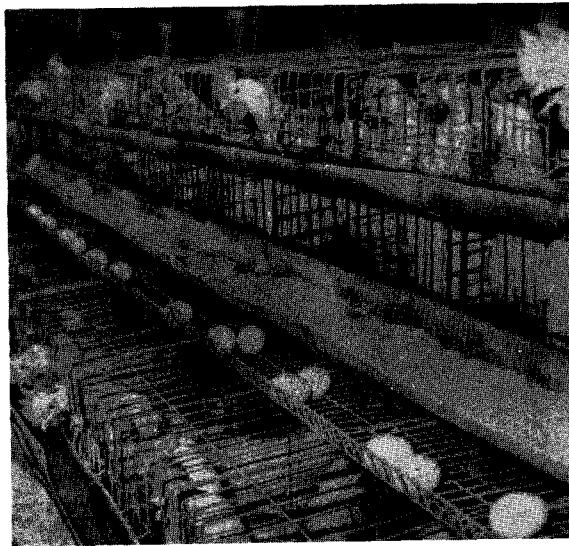
최소 : 186원 (891원 - 705원) 생산자 수취대비
26% (186원 ÷ 705원)

계란 유통마진은 26~53%

● 계란의 유통경로 압축의 중요성과 효과

1) 부가가치가 불지 않은 상품으로서의 계란의 특성

경제학에 있어서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행동



은 노동력의 제공에 의하여 상품에 부가가치가 누적되어 간다고 개념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하여도 부가가치가 붙지 않는 상품에는 노동제공의 한계가 생겨 국가경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 더욱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의 지표에는 써-비스재로서의 시간과 도매상과의 장소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면에서 경제학의 개념에서 본 상품으로서의 계란은 노동력을 제공하여도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유통경로를 압축하는 방법이 생산자 및 소비자,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2) 매년 상승하는 계란유통경비의 실태

계란의 유통경비 상승요인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자재 및 운임상승 등에 기인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 및 생산의 신장을 기대할 수가 없고 관계업계의 1인당 취급수량 확대도 곤란하고 인건비 상승 등 대도 곤란한 현실이다. 생산자의 계란판매 수취(손에 쥐는 돈) 가격에 대하여 유통경비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가 (26%~53%)를 이해 하여 주기 바란다.

따라서 양계농가의 수취가격에 대하여 1.3배 ~1.5배의 가격으로 소비자가 계란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비자의 지지(합의)를 얻기 위해서도 판매망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알

수 있다. 즉 계란의 생산비절약도 중요하지만 1kg 당의 유통경비절감, 유통경로의 압축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여주리라 믿는다. 일반적으로 계란은 물가의 우등생이라고 으시대웠지만 이것은 업계 및 양계농가의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인하에 기인하는 것이고 금후 대규모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코스트하락을 촉진시키는 방책으로서 유통경로의 압축을 피할 길이 없다.

양계농가가 계란을 직매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별문제이고 그것은 일부양계장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유통경로는 각자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이고 이러한 기능이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능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부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을 것이다.

3) 긴 시간과 유통경로의 문제점

가. 소비자의 계란구입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 및 사회의 지지를 못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국내산 계란구입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받아 국내산 계란의 소비는 줄어들고 수입증대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양계보국이라고 하는 양계산업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찬사를 받기는 어렵게 된다.

나. 유통경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양계농가의 실질판매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위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기존의 유

통업자가 찬존하는 이상은 다른 편법을 쓸 수도 없고 묘안이 없는 것이다.

다. 계란의 선도저하가 발생하여 소비신장을 저해한다.

계란은 깨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많이 닿을수록 품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계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많이 갈수록 그 선도는 떨어지고 소비신장은 저해당한다.

현실적으로 큰 시장의 소비자들은 날자가 오래 묵은 계란을 날계란으로 먹어도 좋다고 확신하고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임상적으로 계란의 선도는 산란후의 경과일수와 같이 저하되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큰 시장사람들은 계란의 선도에 불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신장을 둔화시키게 된다.

라. 양계농가의 생산 및 유통가격이 상승하여 교섭경로가 길기 때문에 판매가격교섭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취급량의 확대 및 시장점유율 경쟁의 여파로 고객에게 가격인상요청을 못하고 또다른 가계

로 거래변경을 할까 불안하여 가격인상조차 못하고 사업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매가격만 올리는 일이 많다.

마. 유통경로 압축의 효과

이상과 같이 양계농가에 있어서 유통경로를 압축하는 일은 실질적인 판매가격 인상과 합리적인 공급가격에 의한 소비자의 지지확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계란공급에 의한 소비증대, 생산량의 확대와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거래조건의 교섭이 신속하고 무난히 진행되고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이 투명하게 전개되는 등의 효과가 생긴다. 단 유통경로를 압축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판매가 다원화해지므로 소비자소식에 부응하고 한층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수요에 맞는 규격란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에 맞는 계획 생산, 계획출하(정시정량 출하)등이 시장분산기능 저하에 대단히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다.

PUMISET 품질에서 단연 앞선 평농의 부화기

- PUMISET 은 현대적 부화기능을 갖춘 기계입니다.
- 더욱 새로운 품질로 개선되었습니다.
- FRP 판넬 캐비넷
- 정밀한 자동제어
-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PUMISET 은 귀하에게 더욱 많은 이익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 PP 난좌 및 철재내부
- 세련된 외양

 平農畜機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TEL : 송탄 (0333) 4 - 7484
서울(야간) 803 - 6724